



##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 현황 설명

✎ 박성민 | ㉠ 승인 2025.06.03 22:07

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지난 2일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 사업의 이용 현황을 설명했다고 3일 밝혔다.

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는 고령 농업인(65~84세)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,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. 이 사업은 또한 농지연금사업과 연계된 매도조건부 임대형(65~79세)에 가입으로 농지연금과 은퇴 직불금을 함께 수령 하는 방식도 가능하여 은퇴농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으로 총 37농가(14.6ha)의 농지 매입과 은퇴직불금을 지급하며 은퇴를 돕고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임대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고 20025년 현재 15농가(5.9ha)의 은퇴를 돕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.

이은수 지사장은 "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업·농촌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며 "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 지원을 확대하고,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(055-760-2534), 농지은행포털([www.fbo.or.kr](http://www.fbo.or.kr)),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.

박성민기자



박성민

---

저작권자 © 경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